

'21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021. 7. 21 / IR그룹)

경영실적 1. 연결손익 종합 – 1 page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실장 입니다.

당사의 2021년 2분기 잠정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손익 종합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대이던 1분기보다 크게 증가한 8조 5,24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700억원, 순이익은 1,26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 매출은 1분기에 이어 철강재 판매 호조와 더불어 곡물 및 원자재 가격 등 지속적인 시황 상승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0.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트레이딩 호조와 함께 자회사인 SPS, 인니팜오일, 우즈백 면방 등 주요 투자법인의 이익이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1,263억원으로 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 연결손익입니다.

경영실적 2. 연결손익 상세 - 2 page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조 4,3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철강 부문이 25% 증가하며 매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식량 사업 매출도 2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1,700억원은
본사 트레이딩, 무역법인 등에서 866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법인은 자회사 SPS, 인니팜, 우즈벡면방 등 주요 법인의 이익 증가로
전분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45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판매량이 소폭 감소한 476억 입방피트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판매 가격이 상승하였고, 개발 2단계 투자비 회수가 증가하며
37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 손익으로는
트레이딩 호조에 이자비용이 -148억원 발생하였고,
관계기업 손익은 +156억원으로,
미얀마육상가스관, 수단제약, KOREA LNG 에서 지분법이익이 발생한 반면
암바토비 광산은 8억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으로는 암바토비 프로젝트 한국 컨소시엄간 중재소송에서 승소하여
기납부한 캐시콜이 환입되어 12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페루8광구의 환경복구비용 39억원이 있었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3 page

다음은 주요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난해 미주, 아시아, 중국의 그룹사 수출채널을 통합한 철강사업부는 지속적인 시황 상승 및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1분기 보다 상승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룹사 해외 마케팅을 주도하며 신규 개발 고객 13개사, 장기 미거래 고객 6개사 재개 등 글로벌 상권을 확대하고 포스코 월드탑프리미엄 제품中 자동차강판은 상반기 116만톤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철강2본부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향 가공 패키지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E-sales 거래 기반을 다져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철강수요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노력에 따라 3분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소재와 가공 패키지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그룹사 해외생산기지향 원료 수급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3~4 page

에너지사업은 1분기에 이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 실적 반등의 시그널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가스전 판매량은 비수기임에도 하루 5.2억 입방피트를 기록하였고, 판매가격도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개발 2단계 프로젝트의 투자비 회수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320억원 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미얀마내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전 설비는 정상 가동 중이며, 3분기에는 가스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미얀마 가스전을 비롯하여 추가 매장량을 확보를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탐사를 지속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확대를 위한 투자 기회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식량소재본부는 식량사업과 미래차 부품 및 소재 판매에서 견조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식량 트레이딩은 신곡 출하전 다소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대두 등 곡물가격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친환경차용 마그넷, 차동기어 등 부품과 구리, 알루미늄 등 경량화 소재 판매 확대가 이어졌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4 page

식량사업은 본사 트레이딩과 인도네시아 팜농장,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등을 통해 상반기 영업이익 3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모빌리티사업은 본사 트레이딩과 SPS의 TMC사업실 구동모터코아 판매를 중심으로 상반기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식량 소재분부는 식량사업의 신규 밸류체인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및 친환경 소재 사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법인은 글로벌 시황 개선과 트레이딩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 263억원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철강재 판매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철강원료, 식량 판매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투자법인들은 사업 안정화 및 이익증대 노력으로 상반기 83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포스코SPS는 철강재 판매가격 상승과 구동모터코아 판매 증가로 3개 사업실 모두 실적 호조를 보였으며, 인니팜오일 사업은 CPO 가격상승과 생산량 증대로 상반기 38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성장 로드맵 1. 철강사업 및 주요 자회사 현황 – 5 page

다음은 상반기 트레이딩을 이끌어 온 철강사업과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한 주요 자회사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철강사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상승한
1,254억원을 기록하였고,
좌측 하단의 해외 지역별 포스코재 수출 판매량을 보시면,
전체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346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19년말 아시아지역 수출채널 통합을 시작으로 '20년 상반기 미주지역,
'20년 하반기 중국지역을 통합하며 구조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말에는 일본지역 통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글로벌 수출채널 통합은 향후 신규고객사 발굴과 패키징 판매 등
통합 시너지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회사 포스코SPS는 분할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철강산업 호황과 더불어 매분기 생산/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구동모터코아 사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터코아는 2분기 27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모터사들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모터코아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진행중인 천안 및 포항 설비증설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현재 포스코그룹사가 보유 중인 중국 포스코아에
유상증자 참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과 Capa 증설을 통해 해외 구동모터코아 시장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장 로드맵 1. 철강사업 및 주요 자회사 현황 – 5 page

다음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현황으로
CPO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은 380%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지속적인 CPO 단가 상승과 생산량 호조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24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CPO생산량은 계절성이 있고
3~4분기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신규 3기 CPO 공장 증설 진행 중이며,
22년 말 1차 9만톤의 증설을 완료하고
24년 말까지 2차 추가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분기 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